

[ 종합 ]

# 광양만 악취 심각

## 암모니아 농도 타 지역 비해 최대 6배

## 아연·납 등 중금속 농도도 매우 높아

광양지역의 악취가 타지역보다 심각하고 광양만 해역의 중금속 농도도 기준치 내이지만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2일 발표한 광양만권 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 농도는 광양이 겨울철에 최고 596.9ppb로 인근 지역인 경남 남해(305ppb), 하동(224ppb)과 여수(175ppb), 고흥(85.5ppb)에 비해 최대 6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 악취 분야 조사를 맡은 세종대 전의천 교수는 “암모니아 농도가 150ppb를 초과하면 사람이 역한 냄새를 느끼게 된다”며 “광양지역 암모니아 농도가 짙은 것은 인근에 있는 산업체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광양만 해역의 퇴적물에서 검출된 중

금속은 아연이 112.3μg/l 로 하동·남해 등 인근 해역의 14.53μg/l 보다 8배가량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납이 15.11μg/l 로 인근 해역의 4.41μg/l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구리는 15.65μg/l 로 인근 해역의 8.19μg/l 보다 2배가량 높은 농도를 보였고,

비소도 0.05μg/l 로 인근 해역의 0.08μg/l 보다 농도가 높았다. 특히 광양만 내만을 중심으로 해파리류가 대량 출현하고 동물성 플랑크톤 출현 개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오염 진행 정도도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퇴적물 분야 조사를 담당한 전남대 조현

서 교수는 “광양만 해역의 퇴적물에서 검출된 중금속 농도는 모두 기준치 내이지만 타지역보다 높아 정밀한 분석, 조사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 초남산단단지 토양에서 검출된 비소 농도도 최대 59.22ppm으로 기준치(20ppm)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년간의 조사를 총괄 담당한 전남대 최상원 교수는 “환경오염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광양만권역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광양만권 5개 시·군(광양, 하동, 남해, 여수, 순천)이 공감하는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며 확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사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3억원을 투자했으며, 광양환경운동연합측이 실무를 맡았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 시 설

##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폐지 아직 이르다

정부와 여당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를 강행하면 재정력이 열악한 광주·전남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목적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해 거둔 뒤 재원을 나누면 된다고는 하지만,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밀리기 일쑤인 농어촌과 교육문제의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농특세와 교육세 폐지가 농도(農道)인 전남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전남은 매년 농특세에서 1조1천억원, 교육세에서 2조2천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두 세금을 모두 없애면 현재 ‘쌍끌이’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교육기반 해체를 막을 최소한의 방패마저 없어진다.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이뤄져 오해려 농어촌 붕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은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수년째 건의하고 있다. 연 1조798억원의 교육교부금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농어촌은 이른바 내년부터 구제화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개방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하면 광주·전남 교육감이 쓰고 있는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는 없애고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가져와야 하는데,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마당에 단체장들이 얼마나 교육에 투자할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이들 세금을 없애고 싶다면 이에 결맞은 환경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해결책도 필요하다. 지금은 농특세와 교육세를 폐지할 단계가 아니다.

## 의학대학원도 수도권 출신 ‘천지’라는데

지방대 인재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광주지역 의화전문대학원도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수도권 학생들의 실력이 더 낮기 때문이지만,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지방대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 걱정이다.

2009학년도 전남대 의화전문대학원 합격자의 57.1%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조선대학교 의화전문대학원은 더 심하다. 전체의 63.5%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채워졌다. 광주·전남 출신은 15~29%에 불과하다. 전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67%도 수도권 대학에서 왔다.

이렇게 되면 지역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던 제도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수도권 출신은 인

구와 돈이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출신 수도권 대학생도 온다고는 하나 이들은 지방대 발전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벌써 일부 수도권 언론은 로스쿨과 의화전문대학원의 지방대 정원을 줄여 수도권으로 돌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줄고 있는 지방대 신입생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 전문대학원에도 못 가는 지방대에 누가 오려고 하겠는가. 신입생 감소는 지방대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지방대가 쇠퇴하면 지방도 함께 죽는 것이 정해진 순서다.

해결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전문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게 지방대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둘째는 광주·전남 지방대생에 대한 특례입학 제도의 확대 혹은 신설이 필요하다. 지방대가 먼저 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J프로젝트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개발”

## 광주 택시요금 500원 오를듯

### 국가경쟁력강화위, 관광산업·공공기관 개편 방안 발표

## “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임명권 주무장관에 이관”

상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축소했다. 또 공공기관의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했을 때는 해당기관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며, 부실감사 공시에 대한 페널티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시제도가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직도 ‘은행이 움직이지 않는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많은 불만들이 있다”면서 “세계가 전대미문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남·영광 일대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가 탄소제로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개발되고 지리산 국립공원 내 고품격 휴양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또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임명권이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이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과를 각각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를 ‘탄소제로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개발하고 지리산, 태안 등 국립공원 내 고품격 생태 휴양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역사·문화자원, 자연·생태자원, 문화·예술·IT 자원을 이용한 한국적 특색의 명품 콘텐츠 개발과 진철하고 안전한 관광 한국 이미지 창출,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전략적 개발, 관광 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이 보고됐다.

녹색 생태관광 자원으로 대폭 확충해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700만㎡)를 폐기물, 바이오, 자연력 에너지, 환경문화공간 등 4가지 테마의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날 상임감사 임명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의 기능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영화나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하고 정부의 직접 관리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시장 ‘미국후 빅3’ 쇼크에 ‘휘청’

## 코스피 50포인트 급락...원·달러 환율 상승 반전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 자동차업체 ‘빅3’에 대한 구제금융안의 부결 여파로 크게 요동쳤다.

12일 코스피지수는 50.61포인트(4.38%) 급락한 1,103.82로 마감돼 5거래일간의 상승세를 멈췄다.

코스피는 미국의 3대 자동차업체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제법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에 1,100선이 무너지

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8.42포인트(2.56%) 떨어진 320.07로 거래를 마쳤다. 또 이날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는 급락 사이드카가 발달됐다.

장 후반에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가 각각 300억달러로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의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외환시장도 추가 급락의 영향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00원 급등한 1,372.50원으로 마감돼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다.

한편 미국 상원의회는 미국 3대 자동차업체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제법안을 놓고 자동차업체, 전미자동차노조(UAW) 등과 함께 협상을 벌였으나 자동차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본 업체 수준으로 삭감하라는 공화당의 요구를 노조 측이 거부, 표결이 좌절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올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

## 韓銀, 잠정 집계...내년 환란 후 가장 낮은 2% 성장 전망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년 연간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에 그치고,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보다 10만명 가량 줄어든 4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2009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6% 하락해 2003년 1분기(-0.4%)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전기 대비 감소 폭으로는 1998년 1분기(-7.8%) 이후 최대치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3.7%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내년 연간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2.0%에 그쳐 외환위기 때인 1998년(-6.9%)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내수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도 세계경기 둔화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상반기에 0.6%, 하반기에 3.3%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내년보다 높은 4.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의 내년 전망치는 골드만삭스 등 세계 7개 주요 투자은행들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1.2%보다 높은 수치지만, 국내 예측기관들이 전망한 2.4~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 빛日만평

- 김중두



형편 나아지면 의미가 반감되는데...



전주연(오른쪽 두번째) 광주시 서구청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섬김이 대상' 시상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서구 제1회 ‘섬김이 대상’ 수상

공공성실 승인 등 기업 민원 처리기간을 50% 단축시킨 광주시 서구(청장 전주연)가 12일 제1회 ‘섬김이 대상’을 수상했다.

‘섬김이 대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불편 규제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공직자와 기관에 주는 상으로 서구는 안산시, 부산시, 창원시와 함께 기관 포상을 받았다.

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기업활동 장애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24종의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없앤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반시설 부담금 법률 폐지를 이끌어내

면서 업체당 2천5백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신광정림산업단지의 경우 약 160억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전했다.

서구는 또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기업인을 선정해 자금, 신용보증,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혜택을 지원했다.

또 이날 시상식 개인 부문에서 순천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24종의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없앤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정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체육팀 2200-627	사건부 2200-690	사건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